

## 15 | 선박 의장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63세	직종	선박 의장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 1 | 개 요

망 하○○는 2000년 1월 5일 ○○기업에 입사하여 선실 벽 및 천정 부위에 판넬을 붙이고 문고리, 손잡이 취부 등 선실 의장업무를 하였다. 2006년 10월 조직검사 결과 폐암3기로 진단받았고 2008년 6월 28일 사망하였다.

### 2 | 작업내용 및 환경

망 하○○가 근무한 ○○기업사는 ○○ 조선의 하청업체로 창틀과 벽채, 욕조, 문고리 등 선실 내 인테리어 조립을 수행한다. 완제품인 창과 판넬을 서로 크기를 맞추어 피스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접착제는 쓰이지 않았다. 벽채에 쓰이는 판넬과 찬넬, 문도 각각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납품되고 있다. 완제품 조립 외의 업무는 용접 업무와 덕트 의 보온재 처리 작업이다. 용접 작업 전단계에서 마킹을 하는 작업이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용접봉은 연강용 접봉을 사용하였다. 회당 10-20초 정도로 소요되며 하루에 몰아서 할 때에는 1시간-2시간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용접흠 및 중금속 노출 수준은 모두 허용 기준 미만이었고 기타 분진의 노출 수준도 허용기준 미만이었다. 덕트 작업 및 판넬 속 단열재의 섬유상 물질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덕트에 직접 감는 물질은 유리섬유(95%이상), 판넬 속 단열재는 미네랄 울(95%이상)이었고 각각 석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 3 | 의학적 소견

망 하○○는 ○○기업 입사 이전에는 농업과 양계업에 종사하였다. 유족의 진술상 하○○는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 경험자였으나 2000년부터 금연하였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현재 확보한 의무기록에는 과거 누적 흡연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폐암 등 악성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없었고, 약물 복용력도 없었다. 과거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다루는 화학물질로는 농약 등이 예상되나 사용해온 상품명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기업사에 입사 전에는 용접이나 유사한 의장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2005년 상반기 검진에서 흉부 엑스선상 고립성 폐결절이 발견되었으나, 재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었다. 2006년 검진결과 고립성 폐결절의 변화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2006년 10월 조직검사 결과 폐암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았을 때 3기로 판정받았다. 폐암 진단 후 2006년 10월 19일자로 퇴사하였으나 2006년 12월 ○○기업사에 일용직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2008년 5월 14일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6월 28일 사망하였다.

### 4 | 결 론

근로자 하○○는

- ① 2000년부터 약 6년간 조선업의 목의장 작업에 종사하였고,
- ② 폐암이 진단되기 1년 전인 2005년 동일한 위치에 폐내 고립성 종괴가 발견되어 실질적으로 폐암이 발견된 시기는 2005년으로 보아도 무방한데,
- ③ 입사 후 폐암 종괴가 발견되기까지 기간이 5-6년으로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 10년에 못미치며,
- ④ 작업 내용 분석 결과, 발암성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낮고 간헐적인 작업형태로써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 하○○에서 발생했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